

전북대 한희 석사과정생, 한국곤충학회서 '2관왕'

전북대학교 한희 석사과정생(농축산식품융합학과, 지도교수 김소라)이 '2024 한국응용곤충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포스터 발표와 사진 공모전 등 2개 부문에서 우수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 석사과정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Catocala속(Genus Catocala) 뒷날개나방류 연구로 포스터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뒷날개나방류 곤충을 시각적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각적 분류 키(Pictorial Key)'를 소개했다.

이는 외형이 유사해 분류가 어려운 곤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종별 구별이 어려운 외형적인 특징을 시각적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곤충을 주제로 열린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도 해충인 갈색날개노린재가 산란하는 특별한 생태적 장면을 렌즈에 담아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희 석사과정생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많은 도움을 준 김소라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를 기반으로 계통분류학(taxonomy) 연구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신흥교회 · 순복음반석교회, 이웃돕기 성금기탁

남원시 보절면(면장 김대기)은 지난 12월 6일 보절면 신흥교회(목사 박은열)가 보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신흥교회는 국내 후원뿐만 아니라 내전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해외 현지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산동면 순복음반석교회(목사 조진영)가 산동면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하였다.

반석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기탁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해 왔다.

이 성금은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서,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박충근) 여성청소년계는 관내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등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 등록 대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이며 사전 지문 등록은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무주경찰서는 최근 관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 80여명을 대상, 지문 등 사전 등록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방문 외에도 '안전 Dream' 앱을 이용한 간편 등록 방법 또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 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수석자 배출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 김효경 학생 "체계적 교육과 교수님 헌신적 지원 덕분"

전주비전대학교 김효경(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 학생이 2024년도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8년도와 2022년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르면 이번 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 전국에서 2,200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김효경 학생이 가장 높은 성적을 낸 것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자격증 특별반'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석을 한 김효경 학생은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전국 수석이라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 김환희 학과장은 "김효경 학생의 전국 수석은 학생들의 노력과 학과의 교육적 역량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동신초 한승인 교사,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과학 교육 · 경진대회 · 지도 · 수상 등서 '두각'

정읍 동신초등학교 한승인 교사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학교사들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사들의 자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과학교육의 확산에 공헌한 교사들을 발굴하여 수상하는 상으로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3차의 엄정한 심사과정 거쳐(본과심사, 공적 공개검증, 종합심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승인 교사는 학생과 교사 대상 과학·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과학교육 자료 및 콘텐츠 제작, STEAM 수업 사례 보급, 교원 과학발명연구회 운영, 과학분야 진로 컨설턴트, 과학대회 심사 및 자문위원, 과학교과서 심의위원 활동 등을 통해 과학교육의 확산 및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학생과학발명동아리, 발명반, 과학영재학급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등 각종 과학대회에서 다수의 최우수상과 특상을 지도하면서 전국 단위 과학발명대회 지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발명교육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2023 대



한민국발명교육대상 수상(공적기간 5년)에 이어 과학교육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전북에서는 최초로 발명교사 인증제 명인 인증(공적 기간 7년)을 받은 과학·발명교육의 전문가이다.

동신초 한덕원 교장은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수상에 이어 한승인 교사의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승인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승인 교사는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촌신활력추진단,기초액선그림아카데미3기수로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단장 김성주)은 지역 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초액선그림 아카데미 3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농촌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력 육성 사업으로, 3주간 총 7회의 교육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는 지역조직과 시민 3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신활력사업의 이해, 사업화 방안, 사업계획 컨설팅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수료한 팀들에게는 창의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조직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정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의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죽향동 지사협 등,사랑의김장김치 나눔 행사

남원시 죽향동에서는 12월 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주민 자치위원회, 청년회, 남원사회복지관 주민 등 참여해 겨울철 취약계층 및 관내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사업(협의체와 공동모금회 협약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서로 이음/서로 돌봄/희망 드림(Dream)' 특화사업이며, 나눔과 돌봄이 필요한 100가구와 경로당 8개소에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 사용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는 6일 다중이용업소 내 이동식 난로 사용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 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동식 난로의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와 비상구 확보 등의 안전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장은 "겨울철 난방 기구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